

##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송 유 진<sup>†</sup>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 An Analysis of Married Women's Fertility Plans in Korea

Yoo-Jean Song<sup>†</sup>

Dept. of Sociology, Dong-A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was examine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fluencing married women's fertility plans in Kore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fertility plans by using census data, and therefore this study employs 2010 census 2% sample data. It focuses on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not only whether women have plans for additional children but also how many additional children women plan to have. Women's age, age at marriage, employment status, number of children, and number of sons are consistently associated with their fertility plans and planned number of additional children. The educational level is positively related to plans for additional children for both men and women, and the effect weakens or disappears with an increase in the planned number of additional children. The result showing consistent positive effect of the number of sons reflects son preference in Korea. Positive effects of women's high educational attainment and employment status on fertility plans may reflect the importance of economic stability but requires further research.

Key words: married women, fertility plans, census data

#### I. 서론

출산은 지극히 개인적인 현상이지만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다양한 측면에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학문적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한국은 유례없는 출산 저하를 경험하였고 초저출산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축적되었으며 개인의 인구사회적 요인 이외에도 사교육비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결혼 시기의 지연,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인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저출산 현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둘째 자녀출산 여부가 저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Dong-A university.

접수일: 2014년 6월 5일 심사일: 2014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19일

<sup>†</sup>Corresponding Author: Yoo-Jean Song Tel: 82-51-200-8629

e-mail: yjsong28@da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둘째나 셋째를 낳고 어떤 사람들은 한 자녀에서 출산을 멈추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출산계획에 주목하였다. 출산계획과 실제 출산행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지적된 바 있다(Kim 2007a).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앞으로의 출산 행위를 전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직 출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계획이 실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떤 요인들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조사 시점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출산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출산계획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출산계획에 대하여 수행한 기존 연구들은 첫째 자녀 출산 이후 둘째 자녀 출산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출산계획에 대한 연구 중 센서스 자료를 사용한 것은 Shin(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출산계획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적었던 것은 이에 관한 질문을 포함한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출산 관련 조사나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아동패널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위의 자료들은 전국 규모의 조사이며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에 손색이 없다. 또한 인구사회적 요인 외에 가치관이나 성 형평성 등 다양한 요인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들의 표본들을 제공하는 대규모 전국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센서스)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출산계획 관련 연구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규범으로 작용한다는 배경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둘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이유라는 점이 지

적되면서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을 하였다. 그러나 자녀를 1명만 출산하려는 사람과 2명 혹은 3명 이상을 출산하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특성과 이들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 출산계획 자녀수에 따라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특성이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출산행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센서스 자료의 이용이 적었던 이유 역시 자료의 부족과 제한점에 기인한다. 센서스 조사는 전국 규모의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질문이 제한적이다.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다양한 질문을 추가하는 센서스 표본조사의 경우에도 ‘추가자녀 출산계획’이라는 질문이 포함된 것은 2005년부터이다. 또한 다양한 질문을 추가하는 표본조사이긴 하지만 사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질문이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국 조사인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기혼여성의 출산계획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센서스 표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기혼여성들의 추가자녀 출산계획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자녀 출산계획 수에 따라 자녀를 1명만 낳고자 계획하는 사람들과 2명 이상 낳고자 계획하는 사람들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출산계획에 대한 기존 연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느냐에 따라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 가치관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 성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나뉜다.

Kim(2007a)은 인구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미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최초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한국사회에서 첫째자녀 출산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둘째자녀 출산부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자녀 출산계획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안정성과 양육보조자와 같은 지원이 중요하며, 셋째자녀 출산계획은 이상자녀수와 남아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Shin(2009) 역시 이미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출산계획이 달라짐을 주장하였다.

Kang(2007)과 Cha(2008)는 인구사회적,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Kang(2007)은 ‘자녀양육 책임감’과 ‘이상자녀수’와 같은 가치관 및 부부만족도와 같은 가족관계가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Cha(2008)는 둘째자녀 출산계획에만 초점을 맞추어 첫째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된 부모역할의 정서적 보상이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Lee and Choi(2012) 역시 결혼행복감과 일·가정 양립갈등이 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자녀양육에 투입되는 비용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경우(Lee 2010; Jung & Choi 2013)도 있고,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나 취업유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Chung and Jin(2008)은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즉 취업여부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지원과 가치관이 중요하며 전업주부는 자녀양육비용과 가치관, 첫째자녀의 성별이 중요함을 밝혔다. Kim(2010)은 기혼여성의 취업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서 추가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

성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Park 2008; Shin 2013)는 가족 내 남편의 분담이 증가할수록 둘째자녀 출산계획이 높아짐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는 취업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취업여성은 남편의 분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째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출산 연구에서 성형평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수준이 높다는 연구들에서 비롯되었다(Chesnais 1996; McDonald 2000;

Sleeboos 2003). 거시적인 국가 비교 뿐 아니라 서구의 미시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도 가족 내에서 가사분담 혹은 자녀양육 분담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Torr & Short 2004).

이렇듯 기존 연구들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서스와 같은 대규모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미미하다는 점과 출산계획 자녀수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차별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센서스 표본조사 자료 중 2%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센서스 표본조사 자료는 가구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대한 질문과 가구 및 주택 관련 사항, 그리고 특·광역시별로 추가되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가구원에 대한 사항만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20-44세 기혼여성으로 제한하였다. 분석대상에는 이미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있고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었다. 주된 분석대상은 기혼여성이지만 가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남편의 특성도 변수로 만들어서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총 인원은 117,508명이다.

이 연구의 초점은 1) 추가자녀 출산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2) 추가자녀 출산계획 수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가자녀 출산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추가자녀 출산계획 수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순서화 로지스틱 회귀분석(generalized 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일반화된 순서화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순서화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평행선 가정(parallel lines assumption) 혹은 동일한 기울기 가정(equal slope assumption)이 깨졌을 때 활용한다(Williams 2006).

일반화된 순서화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3단계로

실시하였는데 1)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과 1명 이상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을 비교하고, 2)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과 1명 출산할 계획이 있는 여성을 2명 이상 출산할 계획을 가진 여성과 비교하고, 3)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없거나 1-2명 있는 여성을 3명 이상 출산할 계획을 가진 여성과 비교하였다. 이는 추가자녀 출산계획수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되었으며,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동일하지 않다는 모형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는 여성의 현재 연령과 결혼연령, 여성의 교육수준과 남성의 교육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와 남성의 종사상 지위, 현존 자녀수, 현존 남아수, 거주지역이다. 여성의 현재 연령과 결혼연령은 모든 출산 관련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변수이다. 현재 연령은 생물학적인 가입능력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출산계획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혼연령은 결혼기간을 통한 가입 가능 기간을 반영하여 출산계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변수 역시 출산을 연구할 때 많이 고려되는 변수인데, 이들과 출산수준과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과거에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이 출산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 최근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효과가 가족 내 성형평성이나 사회적 지원체계 등에 따라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도 있고, 경제력 변수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은 경제력을 반영하여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Brodmann et al. 2007; Choi & Park 2009; Shin 2009).

이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변수가 모두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 변수들을 모두 분석에 투입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전업주부가 과반을 넘는 현실을

고려하여 취업 여부만을 살펴보았다. 남성의 경우에는 센서스 자료에 가구소득에 관한 정보가 없으며 한국사회는 여전히 남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의 경제활동을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였다.

현존 자녀수는 기존연구에서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출산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투입하였고, 현존 남아자녀 수에 따라 셋째 자녀 이상의 출산계획이 달라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현존 남아수를 변수로 사용하였다(Kim 2007a; Park 2008). 거주지역은 특·광역시와 광역도로 구분하였다.

Table 1. Respondent characteristics

	(%, number)
Fertility plan	
yes	16.5 (19416)
No	83.5 (98092)
Women'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degree or less	8.6 (10053)
High school degree	46.3 (54374)
Colleague degree and more	45.2 (53081)
Women's employment	
Yes	45.1 (53027)
No	54.9 (64481)
Men'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degree or less	7.8 ( 9213)
High school degree	37.7 (44321)
Colleague degree and more	54.4 (63974)
Men's employment status	
No job	8.0 ( 9377)
Paid employee	62.9 (73866)
Unpaid family worker/Self-employed	18.6 (21820)
Self-employed with employees	10.6 (12445)
Area	
Seoul and other metropolis city	44.2 (51886)
Province	55.8 (65622)
Mean age of women	39.14
Mean age of women at marriage	25.43
Mean number of children	0.93
Mean number of sons	0.92
N	117508

#### IV.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83.5%가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25.43세이고 현재 연령이 39.14세임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출산을 완료한 경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존 자녀수의 평균이 0.93인데 응답자의 대다수가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자녀 계획이 있는 사례수가 19,416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분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고졸 학력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45.2%로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중졸 이하의 학력은 8.6%에 불과하였다. 남성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난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고졸이 37.7%, 중졸 이하는 7.8%였다. 응답여성 중 취업한 경우는 45.1%였고 남성 배우자는 92%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배우자 중 임금근로자가 6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은 18.6%를 차지하였다.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는 10.6%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과 광역시는 44.2%, 광역도는 55.8%이다. 평균 자녀수와 평균 남아수는 각각 0.93명과 0.92명으로 유사하다. 이는 응답여성 대부분 1명의 아들을 출산하고 출산을 중단한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는 출산계획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자녀 계획이 낮으며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추가자녀 계획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며 (Kim 2007a) 현재 연령의 효과는 가임능력을 반영한 결과이고, 초혼연령의 정적인 효과는 아직 출산을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의 학력에 비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교육수준 역시 전문대와 4년제 대

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수준이 출산계획과 정적인 연관성을 보인다. 또한 취업한 여성이 전업주부에 비하여 추가자녀 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는 반대된다. 어찌면 이는 실제 출산행위가 아니라 출산계획이라는 종속변수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취업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력을 반영하거나 취업으로 인하여 초혼연령을 늦춤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혹은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성

Table 2.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ertility plans

	A plan to have a child
Age	-0.350 ***
Age at marriage	0.252 ***
Women's educational level (ref: Middle school degree or less)	
High school degree	0.230 **
College degree and more	0.352 ***
Women's employment (ref: No)	
Yes	0.150 ***
Men's educational level (ref: Middle school degree or less)	
High school degree	0.091
College degree and more	0.209 *
Men's employment status (ref: No job)	
Paid employee	0.104 *
Unpaid family worker/Self-employed	0.047
Self-employed with employees	0.204 ***
Number of children	-0.619 ***
Number of sons	-0.531 ***
Area of residence (ref: Seoul and other metropolis city)	-0.008
$\chi^2$	52603.2***
N	117508

\* p<0.05, \*\* p<0.01, \*\*\* p<0.001.

의 취업과 높은 교육수준이 과거처럼 무조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지원만 충분히 갖추어지면 오히려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어쩌면 기존 자녀가 있으면서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여성들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남성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와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가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존 자녀수와 현존 남아수는 모두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관된다(Kim 2007; Park 2008). Table 1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존 자녀수와 현존 남아수가 유사한 것과 이 두 변수가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를 고려하면,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하여 남아선호 사상이 약해지긴 하였으나 전반적인 출산수준이 낮아진 현실에서 아들 1명이 있는 여성들은 추가자녀 출산계획을 하지 않는 것으

**Table 3.** A generalize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having additional children

	0 vs. 1 or more	0 or 1 vs. 2 or more	0 or 1 or 2 vs. 3 or more
Age	-0.355 ***	-0.410 ***	-0.455 ***
Age at marriage	0.259 ***	0.317 ***	0.317 ***
Women's educational level (ref: Middle school degree or less)			
High school degree	0.243 **	0.216	0.438
College degree or more	0.364 ***	0.328 **	0.543
Women's employment (ref: No)			
Yes	0.152 ***	0.437 ***	0.317 ***
Men's educational level (ref: Middle school degree or less)			
High school degree	0.102	0.095	-0.050
College degree or more	0.230 **	0.178	0.032
Men's employment status (ref: No job)			
Paid employee	0.115 **	-0.013	-0.102
Unpaid family worker/ Self-employed	0.063	0.044	-0.031
Self-employed with employees	0.211 ***	0.144	0.211
Number of children	-0.609 ***	-0.247 ***	-0.140 *
Number of sons	-0.532 ***	-0.754 ***	-0.486 ***
Area of residence (ref: Seoul and other metropolis city)	-0.000	-0.011	0.059
$\chi^2$		55641***	
N		117508	

\* p<0.05, \*\* p<0.01, \*\*\* p<0.001.

로 판단된다. 거주지역은 출산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3은 추가자녀 계획 수에 따라 순차적인 비교를 함으로써 독립변수의 차별적인 효과를 제시한다. 첫 번째 열은 추가자녀 계획이 없는 여성들과 1명 이상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회귀계수에 약간 차이가 있는 이유는 1개의 일반화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서 추가자녀 계획 수에 따라 순차적인 비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열은 추가자녀 계획이 없거나 1명 있는 여성과 2명 이상 있는 여성(추가자녀 계획 없음과 1명 vs. 2명 이상)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성의 현재 연령과 초혼연령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여성의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자녀 계획이 없거나 1명에서 그치는 반면,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려는 계획을 가질 경향이 높아진다.

Table 2에서 제시한 추가자녀 출산계획 여부를 비교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과 Table 3의 첫 번째 열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반면 추가자녀 계획이 2명 이상인 여성과 나머지 응답자를 비교할 때에는 남성의 교육수준 효과는 사라지고 여성의 교육수준 효과도 낮아졌다. 즉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만 다른 집단에 비해 2명 이상의 추가자녀를 낳을 계획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취업이 추가자녀 계획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도 유의미하게 남아있으며 영향력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이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은 IMF 이후 중간계층의 출산수준이 가장 낮고 하층의 출산수준이 그보다 약간 높으며 상층의 출산수준이 가장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Kim 2007b).

현존 자녀수와 현존 남아수는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존 남아수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는 이상자녀수는 2명이지만 보편적인 규범인 첫째 자녀 출산 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을 고려함을 반영한다. 즉 남아의 존재 여부가 둘

째 자녀 이상의 출산을 계획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은 3자녀 이상의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을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005년 2.30명에서 2009년 1.98명으로 낮아졌다. 이상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68.4%로 가장 높고 1명이 16.5%, 3명 이상이 13.9%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경우는 평균 이상자녀수가 2005년 2.05명에서 2009년 1.83명으로 더 낮으며 이상자녀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1명인 비율이 기혼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3명 이상의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현재 연령과 결혼연령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취업, 현존 자녀수와 현존 남아수도 유의미하게 남아있으며 교육수준의 효과만 모두 사라졌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현재 연령과 결혼연령은 추가자녀 출산계획 수에 관계없이 유의미하다. 이는 현실적인 가임능력과 실제 출산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 가장 기본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현존 자녀수와 현존 남아수 역시 추가자녀 출산계획 수에 관계없이 유의미한데, 회귀계수의 변화가 흥미롭다. 현존 자녀수의 영향력은 추가자녀 출산계획 수가 늘어날수록 적어지는 반면 현존 남아수의 부정적인 영향은 2자녀 이상 출산을 원할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녀가 있지만 남아가 있을 경우 추가 자녀출산계획을 적게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추가자녀 출산계획을 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추가자녀 출산계획 수가 늘어날수록 약해진다. 반면 여성의 취업은 계속해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출산계획과 실제 출산행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취업한 여성이 추가자녀 출산을 계획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러한 영향력이 경제력을 반영한 것인지 초혼연령을 늦추었기 때문인지 단정짓기는 어렵다. 일-가정 양립 관련 문항이나 가치관 관련 문

항 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메카니즘으로 여성의 취업이 출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 자체가 출산을 저해하는 요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 V. 요약 및 결론

저출산은 지난 10여년간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따라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이미 일어난 출산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패널조사 자료가 구축됨에 따라 출산을 예측하는 분석이 일부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출산계획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출산계획 자녀수에 따른 차별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출산계획은 출산행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출산을 하려는 확실한 계획과 의지를 반영하기 보다는 단지 희망사항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출산계획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정책 제언이나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규모 전국조사인 센서스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44세 기혼여성들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출산계획 여부 자체와 출산계획 자녀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의 현재 연령과 초혼연령, 여성의 취업, 현존 자녀수와 현존 남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은 출산계획 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출산자녀 계획수에는 차별적인 영향력이 낮아졌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연령은 생물학적인 가임능력을 반영하는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에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초혼연령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가임기간이 짧고 아직 출산을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산계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현존 자녀수에 따라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적어지는 것은 저출산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존 남아수에 따라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적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닌 여성에게서 현존 남아수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단 남자를 출산한 여성은 추가적인 자녀 출산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취업과 높은 교육수준은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경제적인 안정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성의 취업이 왜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존 자녀수에 따라 분석대상을 구분할 수도 있고 분석대상인 기혼여성의 연령을 더 좁게 한정할 수도 있다. 혹은 취업여성과 비취업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대상을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분석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센서스 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기혼여성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만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어려운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대규모 전국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대 한국사회의 기혼여성들의 전반적인 출산계획 현황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추가자녀 출산계획 수에 따른 순차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추가자녀 출산계획 여부는 물론 수에 따른 차별성을 부각시켰다는 의의도 지닌다. 뿐만 아니라 계획하는 출산자녀 수에 따라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 추후 센서스 자료는 물론 다른 자료들을 활용하여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할 계획을 하면서 연구를 마친다.



## References

- Brodmann S, Esping-Andersen G, Guell M(2007) When fertility is bargained: second births in Denmark and Spa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5), 599-613.
- Cha SE(2008) Cost/reward of parent role and decision to have a second child: focused on socioeconomic differences. *Social welfare policy*, 33(6), 111-134.
- Chesnais JC(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 and Development Rev*, 22(4), 729-739.
- Choi EY, Park YS(2009) Differential fertility b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region. SRI Research Report, 3, 176-253.
- Chung HE, Chin MJ(2008)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Korea J Pop Studies*, 31(1), 147-164.
- Joung EH, Choi YS(2013)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 33(1), 5-34.
- Kang YJ(2007) Family related factors affecting the second birth decision: focus on the value of children and family relationships.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18(4), 639-653.
- Kaufman G, Bernhardt E(2012) His and her job: what matters most for fertility plans and actual childbearing? *Family Relations* 61, 686-697.
- Kim CS(2007a) Parity specific approach to the plan of having an additional child. *Korea J Pop Studies*, 30(2), 97-116.
- Kim DS(2007b)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Korea J Pop Studies*, 30(1), 67-95.
- Kim HJ(201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ried women's fertility behavior depending on patterns of life course with family role and economic activity: focusing on the additional fertility plan.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6), 59-69.
- Kim JH, Yang SY, Sung JH(2013) The effects of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n J Child Studies*, 34(1), 87-102.
- Lee JS, Choi WS(2012) A path analysis on birth plan of married working women: focus on the relationships of gender role attitude, work-family reconciliation, marriage satisfaction and birth plan. *Korea J Social Welfare Studies*, 43(4), 5-30.
- Lee SL(2010) Childrearing expenditure and the intention to have the second childbirth.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10), 105-119.
- Liu S, Hynes K(2012) Are difficulties balancing work and family associated with subsequent fertility? *Family Relations*, 61, 16-30.
- McDonald P(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 and Development Rev*, 26(3), 427-430.
- Park SM(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gender equity within family and second birth. *Korea J Pop Studies*, 31(1), 59-77.
- Shin IC(2009) Spatial effects on the fertility intention of married women. *Korea J Pop Studies*, 32(2), 59-85.
- Shin N(2013) Exploring pathways from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o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Korean J Human Ecology*, 22(3), 405-420.
- Sleeboos JE(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working papers.
- Song YJ(2009) Analysis of how married women adjust time of first birth and birth interval focus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0(4), 579-588.
- Torr BM, Short SE(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 and Development Rev*, 30(1), 109-130.
- William R(2006) Generalized ordered logit/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s for ordinal dependent variables. *Stata J*, 6(1), 58-82.